

오피니언

다산포럼

유지나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첫사랑을 복고풍에 담아낸 ‘건축학개론’이 포스터에 내건 문구이다. ‘8월의 크리스마스’ 이후 나온 부드러운 남성 멜로 드라마 ‘건축학개론’은 첫사랑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며 장기 흥행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를 보고난 관객들이 자신의 첫사랑을 추억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이기도 한다. 남자 역시 아름답고 부드러운 사랑을 꿈꾼다는 공감대가 전달되는 점도 성공적으로 보인다.

‘첫사랑’이란 개념은 마지막 사랑뿐 아니라 여러 번의 사랑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처음이기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혼돈스럽고 서글프고... 그래서 첫사랑은 지나간 과거의 양금이다.

그 양금은 사랑에 따라 인생의 시기에 따라, 그리움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각각각색의 기억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특히 현재가 우울할 때, 과거 기억으로 격정적인 열기가 지배하던 첫사랑은 자연

스럽게 복고풍 정서를 끌어들이었다.

앞으로 무얼 할지? 어떤 이와 인생을 함께할지? 불투명한 앞날을 내다보며 방향하던 청춘. 그 시절 벌어진 첫사랑은 시간이 흐른 후 과거 향수를 담보한 사건으

복고풍 물결의 치유와 매혹

로 의식과 무의식 차원에 저장될 것이다.

이후 세월이 흘러 자신의 인생길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는 되지만, 팍팍하게 다가올 때, 사회적 역할로부터 자유로운 탈주조차 불가능한 기성인이 돼버린 우울함에 사로잡힐 때, 첫사랑의 기억은 현재를 재구성하는 기억의 힘을 보여준다.

“많은 날이 지나고 나의 마음 지쳐갈 때 / 내 마음속으로 쓰러져가는 너의 기억이 다시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라고 노래하는 ‘기억의 습작’(전담회)은 첫사랑의 기억과 현재를 오가며 드라마를 짜나가는

영화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건축학개론 수업에서의 만남, 그러나 제대로 고백 되고 풀리지 못한 첫사랑. 15년 후 재회는 우연이 아니다. 여자가 첫사랑을 찾아내 집짓기를 의뢰했으니까,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 돌보기에 나선 여자는 제주도 집을 개조하는 건축가로 그를 고용한다. 여자는 이혼 후 독신이 되었고, 남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오해 속에 소멸된 첫사랑은 집짓기를 통해 인생까지 거칠 다른 관계의 미학으로 복원된다. 사랑의 종착역이 반드시 결혼일 필요는 없으

그린 ‘씨니’, 상당부분 그 영향력이 느껴지는 ‘댄싱퀸’, ‘범죄와의 전쟁’ 같은 영화들은 가까운 과거를 복고풍 물결 속에서 길어 올린다.

올해 하반기 개봉할 ‘미운 오리새끼’도 동시대적 복고열풍을 증명해준다. 영화뿐 아니라 대중음악이나 일반적 문화현상으로 복고풍이 하나의 물결을 형성하며 물어치는 것은 현재의 불안과 우울을 다루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복고풍 속에 재구성된 기억의 드라마는 상상된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막막한 현재에 대한 성찰이자 미래에 대한 재구성이기도 하다.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발전적 진보관은 경제와 환경적 측면에서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정치만 나아질 것이란 진보적 기대는 이제 재검증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라는 문구가 주술처럼 영감을 준다. 그런 첫사랑이 복고풍의 흐름을 타고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끊임없는 사랑으로 가지 치며 삶의 의지를 복원시키는 것, 그런 일이 문화·정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울한 현재를 견뎌나가는 위안이 된다.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전남 현안사업 대선공약화 서둘러야

여야가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현안을 조기에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대선공약을 발굴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 요구가 이 지역 현안과 겹치는 경우도 있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대선공약을 선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권주자들의 ‘호남 민심잡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호남을 방문하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호남 표심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활용, 지역 현안을 대선공약에 대거 편입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여당 대로 호남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심층적 대안을 내놓을 공산이 크고,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호남 수성’을 위해 지역 현안을 쟁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수도 추진사업과 함께 U대회 및 F1대회 국제지원 확대, 호남고속도로 확장, 서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지역 현안은 셀 수 없이 많다. 여기에 시·도가 지역 미래성장동력이 될 골격적인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까지 따져 제시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구는 이미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해 대선공약화를 위한 테스트코스를 구성했다. 또 전북도 전남의 J프로젝트와 생각이 비슷한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설치 등을 공약으로 요구할 예정이며, 대전도 광주와 전남과 같은 과학비즈니스벨트 후속사업 공약화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대선공약 개발과 채택 선택 노력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눈치만 보다가는 자칫 다른 시·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수박람회 ‘10만 인파’ 감당도 못하면서

여수박람회가 황금연휴 이틀째인 27일 관람객 10만을 넘어서면서 교통대란에, 예약시스템 마비, 환불 요구 등 최악의 오점을 드러냈다. 당초 박람회장 수용한계가 5만~6만 명선인데도 10만 명 이상으로 늘려잡은 게 화근이었다.

이날 오전 박람회장 주변은 박람회 조직위와 경찰이 새벽부터 관람객이 몰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전 대비와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극심한 교통혼란에 빠졌다. 관람객들이 셔틀버스 운행이 시작되는 8시 이전 박람회장에 도착하기 위해 6시부터 자가용 등으로 박람회장 주변에 진입한 때문이다.

예약제 역시 10만이 넘는 인파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예약제는 관람 편의와 현장에서의 관람객 분산을 위해 조직위가 인기 전시관 8곳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이날 관람객이 8개 전시관의 관람을 둘러보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낀 것은 아닌지 자성할 때다.

조직위가 뒤늦게 예약제를 전격 폐지하고 선착순 입장 관리를 실시키로 했다고는 하나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10만 인파’에 대한 기대감만 높였지 그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낙제점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조직위는 이 시점에서 박람회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과 보완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관람객 대책으로 여름철 폭염과 긴 낮시간을 고려, 전시관 관람 개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인파가 몰릴 주말·휴일에는 차량통제 시간을 오전 8시에서 6시로, 셔틀버스 운행시간도 현재 오전 8시에서 앞으로 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위는 전체 관람객 수를 수요에측정한 ‘1080만 명’으로 고집하지 말고 기본계획상의 목표치인 ‘800만 명’으로 변경해 소모적 논쟁을 피해야 한다. 욕심은 좋지만 대책 없는 과욕은 박람회 운영과 이미지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이다.

법조칼럼



이정학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사업의 약진으로 주가 100만원 시대를 열더니 급기야 세계 굴지의 소니와 노키아를 넘어 애플과 경쟁하는 세계 최대의 전기전자 업체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성과로 인해 국부가 증가하고, 국위가 선양됨에 따라 국민 개개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비약 성장함에 따라 국민이 삼성에 바라는 것 또한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기업 삼성

대기업, 국민이 안중에 있는가

이 이 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덕적 기준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 비자금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는 비록 미흡하지만, 이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조성 및 은닉, 상속세 탈루, 편법을 동원한 총수 자녀의 경영권승계, 그 과정에서 관련 계열사들의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것들은 법적·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들이었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 역시 소수지분만을 가진 대기업총수가 계열사별 순환출자 등 자본구조를 이용해 실태처럼 복잡하게 얽힌 계열사를 제왕적 지위로 지배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또 2세, 3세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함에 있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르다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그들 총수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2세, 3세 경영자로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경영권을 가지지 못한 2세나 3세 형제들에게 대기업의 알짜 사업을 할당에 또는 편법으로 양도하는 사례, 대기업이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해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에 진출,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진출해 중소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두거나 진출한 사업에 대해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정절차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필자도 대기업이 관계회사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문제가 돼 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데, 관련판례나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애를 먹었다.

사건을 진행하며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위 법이 지나치게 엉성하게 만들어져 대기업이 차명회사를 이용하거나 회사관계인 또는 총수의 친인척을 내세워 중소기업영역에 진출한 때에는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보니 이러한 사업 조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국회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위 법을 만들었지만 과연 실제로 중소기업 보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여론에 밀려 법을 만들긴 했으나 오히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영성된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성장을 위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어 경제의 외형 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전반이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에 대한 감시를 지나치게 소홀히 한 나머지 법의 존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낀 것은 아닌지 자성할 때다.

〈변호사〉

기고



박청웅

프로야구의 인기가 절정이다. 야구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야구장에 찾아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의 승리를 위해 경기장이 떠나갈 듯 응원가를 부르며 야구의 재미에 빠진다.

하지만, 10여 년 전. 선수들의 땀과 열정, 팬들의 뜨거운 함성이 가득했던 야구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경기도중 베이스를 돌던 한 선수가 갑자기 심정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이후 오랜 시간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생활을 하던 중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 곁을 떠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25만7000명 중 급성 심장질환으로 사

생명을 구하는 기적, 심폐소생술

망한 이는 2만5000명.

급성 심장질환 사망자는 압과 뇌혈관 질환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3위다. 인구 10만 명당 50명꼴로 높은 비중이다. 최근 서구화된 생활습관과 인구의 고령화로 심정지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2.4%에 불과하다.

일본이 10.2%, 미국 등 선진국이 10~15%인 점을 감안하면 소생률은 매우 낮은 수치다. 심정지 발생 후 1분이 경과 할 때마다 생존율은 7~10%씩 감소하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인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심폐소생술 시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목격자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비율은 1.4%(미국 16%)밖에 되지 않고, 전체 인구의 약 15%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조사되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얼마 전 우리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는 입학식 행사 중 심정지로 갑자기 학생 한 명이

쓰러지자 가까운 곳에 있던 교수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기적처럼 생명을 살려냈다.

2009년에도 당시 한 초등학교생이 집에서 심폐소생술을 아버지를 살리는 등 우리 주위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심정지의 경우 최초 목격자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어느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망방재정에서는 ‘전 국민 생명사랑 심폐소생술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1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인원을 2022년까지 10세 이상 70세 미만 인구의 50% 이상, 연간 300만 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2013년에는 5.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광주 소방안전본부에서도 각 소방서마다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기부자 확보와 전문강사 자격을 보유한 대원들을 배치해 누구나 교육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한심폐소생협회·대한적십자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한국생활안전연합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심폐소생술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어려서부터 심폐소생술을 접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필수 이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행락철을 맞아 산이나 들, 축제 행사장 등에서 누군가 심정지로 쓰러져 의식이 없다면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가슴의 중앙을 30회 정도 압박한 다음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을 두 차례 넣어 준다.

누군가의 손과 입이 쓰러진 환자의 심장과 폐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심폐소생술,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無等鼓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석가탄신일(28일) 연휴 전후로 광주·전남 일부 지역 낮 최고 온도가 30도를 넘어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되면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복장문제로 고민한다. 민원인이나 거래처 손님을 만나고 상사와 이성 동료와 함께 근무해야 하므로 제멋대로 웃을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민의 해법은 이른바 ‘쿨 비즈’(Cool Biz), ‘시원하다’와 ‘멋있다’라는 뜻을 동시에 갖는 Cool과 비즈니스(Business)를 줄인 Biz를 더한 조어다. 한여름에 간편한 복장으로 업무능률을 올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취지에서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올 여름 점검을 위해 전국 원전을 완전 정지시키기로 한 일본은 이미 대대적인 콜비즈에 돌입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시원한 반팔 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업무를 처리하

고 있다. 옷차림만 보아서는 공공기관인지, 피서지인지 헷갈릴 정도다. 그만큼 일본의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서울시와 과격적인 콜비즈 선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6~8월 석 달을 ‘슈퍼 콜비즈’ 기간으로 정하고 민원부서 외에서는

반바지와 샌들 착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여름에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고 회의 시간에는 재킷을 벗도록 하는 ‘간이 콜비즈’로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과격적인 콜비즈를 걱정하는 약하지는 취지에서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올 여름 점검을 위해 전국 원전을 완전 정지시키기로 한 일본은 이미 대대적인 콜비즈에 돌입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시원한 반팔 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업무를 처리하

사람도 있다. 너무 간격 변경할 수도 있다 ‘민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그러나 다른 사람 눈치보라 정장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다가 일처리에 지장 받는 것보단 나은 일이지 않겠나. ‘상식’으로 대처하면 될 일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간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우리 쌀로 지은 아침밥, 자녀들에게 꼭 챙겨 먹이자

집 근처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자원봉사가 있었다. 우리 주부단체가 고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주먹밥과 캔 식혜를 나눠주며 “아침밥 챙겨 먹고 등교하기” 캠페인을 펼치는데 자원봉사가 같이했다.

학생들도 처음 접하는 캠페인이어서인지 관심 있게 반응하고 즐거워 했다. 주먹밥이라는 게 흔히 접하는 게 아니기도 해서 학생들이 호기심을 보였고, 집에서 맛있게 엄마들이 만든 것이다 보니 친한경직적이고 안전한 식품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 특이나 놀라운 일은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

침에 피곤해서 늦게 일어난 학생들이 밥맛이 없어서 그냥 등교하다가 출출한 느낌에 “하나 더 주세요”라며 추가로 먹는 것을 보니 주먹밥을 나눠주던 엄마들은 기본도 좋았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엄마들이 만든 맛있는 주먹밥을 거부감 전혀 없이 받아먹는 것을 보고 우리 농촌에 희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주부단체에서는 최근에 학예회나 학부모 참여수업 때 인스턴트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는가 하면, 그런

것에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 다른 학부모들까지 일일이 적으며 관심 있게 듣기까지 했다.

또 쌀 소비의 중요성과 아침밥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수능성적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알려졌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을 위해 우리 쌀로 지은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이것은 가정에서 엄마들이 특히 절실히 느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침에 빵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흰 쌀로 지은 밥을 먹이는 일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밥을 먹는 학생들뿐 아니라 그것을 챙겨주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런 캠페인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노성숙·광주시 서구 농성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